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1호

체육시민연대 칼럼

걸으면서 운동하고, 스포츠 포인트를 통해 살맛나는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기

주성택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한국스포츠미래전략연구소 소장

하루만보하루천자

오한진 박사의 일침 “정부, 국민에게 걷기운동 필요성 알려야”

조인경 아시아경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국내 스포츠산업 매출액, 1년 사이 11조원 증가”

이상철 뉴스기자

‘모두를 위한 스포츠’...2023년 체육 분야 예산 1조 6398억원

김주희 뉴시스기자

2023년 스포츠 이벤트

WBC, 여자월드컵, 아시안게임..올해도 스포츠는 계속된다

김양희 한겨레 기자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

박세리, 세계 여성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인물 36명에 선정

연합뉴스 연합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걸으면서 운동하고, 스포츠 포인트를 통해 살 맛 나는 행복한 건강 도시 만들기

주성택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한국스포츠미래전략연구소 소장

걷기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운동으로써 다른 운동에 비해 부상의 위험이 적으며, 다양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체중을 조절, 관절 강화 및 심장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멘탈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2022 고령자 통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42.3%), 유산소 신체활동(33.2%), 근력운동(22.5%) 순으로,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스포츠 참여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공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스포츠 참여율(60.8%, 주 1회, 2021년 기준)은 선진국(프랑스: 규칙적인 운동「남성, 71%, 여성, 60%」, 2020년 기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유네스코(UNESCO)의「스포츠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이 스포츠 참여는 국민건강증진 도모와 국가재정에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KISS)에서도 꾸준한 운동과 체력관리가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운동 참여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또 운동과 신체활동, 스포츠 참여의 개인, 사회적 긍정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장제도와 지원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과 분야의 개인 스포츠 활동 참여 이력과 체력인증을 통한 강건한 체력이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와 연동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효과는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온라인 정보화를 통해 스포츠 참여 이력을 건강, 복지, 보건, 의료 정보와 통합적으로 연동하여 건강복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108조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한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6조9568억원이다. 전년 대비 1,375억원 늘어났다.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앞으로 의료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비 절감에 대한 고민은 정부에서도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각 후보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공약으로 다루었고, 그 내용과 방법은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사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KISS)에서 발표한 1인당 운동 효과 비용(40만원)을 2022년(기준)도 대한민국의 인구 51,632,473명을 근거로 단순 계산을 해도 약 20조 6,502억 원 예산 절감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운동으로 얻은 포인트는 기업과 연계하여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포츠 포인트 사업을 토대로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통해서 만성질환 유병율을 낮출 수 있으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의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체력관리와 더불어 의료비 절감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스포츠 포인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 포인트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모델개발이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은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 스포츠 포인트 도입을 통해서 활력있는 도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로 창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생활체육으로 유도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 최고의 복지정책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스포츠 포인트와 관련된 예산 마련 및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포츠 포인트에 대한 주요 이행 방법은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이행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길 기대해 본다.

오한진 박사의 일침 “정부, 국민에게 걷기운동 필요성 알려야”

운동을 시작하는 나이에는 마지노선이 없다. 지금 40대라면 운동을 가장 게을리하는 세대이면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체감하지 못한 세대다. 나이가 80세이고, 이제 여생을 마지막까지 스스로 걸어 다니고 혼자서 화장실 볼일을 보거나 목욕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걷기 시작해야 한다.

오한진 박사는 "나이가 들고 노쇠해 요양병원에 가고, 신병 처리마저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 시작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크게 상실된다"며 "그 기간을 오래 겪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법을 배우고, 그 운동이 나를 살려준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걷기 운동의 필요성을 계속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두들 '운동을 해야 한다'고만 말하는데 그에 앞서 '우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하는 삶은 하지 않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올바른 자세로 걷는 방법을 가르쳐 걷게 만들고,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코스나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국민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지출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몸이 건강하면 마음과 정신이 더 건강해지고, 주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만큼 세상이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스포츠산업 매출액, 1년 사이 11조원 증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1조원이 증가했다.

문체부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포츠산업조사 of 주요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만6095개 기업 중 1만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방문,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사업체 수는 11만6095개로 전년 9만7668개 대비 18.9% 증가 △매출액은 63조9000억원으로 전년 52조9000억원 대비 20.1% 증가 △종사자 수는 40만6000명으로 전년 37만6000명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1조원·114% 증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1조8630억원·146% 증가), 골프연습장 운영업(2조7520억 원·27.8% 증가), 축구교실 등 스포츠 교육기관(1조3000억 원·80% 증가)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골프장 운영업의 매출액은 3%가 오른 6조원이 상승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스포츠용품업 관련 업종도 국민들의 건강과 스포츠화풍에 대한 관심 증가로 매출액이 올랐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산업 규모의 빠른 회복과 혁신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스포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스포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 2023년 체육 분야 예산 1조 6398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체육 분야 예산이 정부안(1조6117억원)보다 281억원 증액된 1조6398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체부는 28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68억원) ▲전국(소년)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및 고등부 출전 지원(31억원)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42억원) 등이 반영돼 내년 예산이 증액됐다고 발표했다.

내년 생활체육 분야 예산은 총 633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 생활체육 참여의 기반이 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령층 선호가 높은 어르신(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6억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601억원) 예산을 확대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원)은 1년 내내 중단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월별 지원 금액도 9만5000원으로 1만 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도 10만5000명으로 2만명을 늘렸다.

전문체육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374억원(9.3%) 증액한 4393억원을 편성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은 1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촌외 훈련 숙박비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전담팀·트레이너는 고용 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며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원) ▲진천선수촌 시설 확충(60억 원)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및 태릉빙상장 대체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각 3억 원) 등을 편성,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의 훈련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스포츠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166억원(18.5%)을 오른 1063억원을 편성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대회 운영, 선수프로그램, 대회 공식행사 등 준비에 95억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31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에서 최초로 유치·개최하는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지원(42억원)도 추진한다.

장애인 체육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62억원(6.9%) 증액한 963억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2023년 체육 분야 예산에 대해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대표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스포츠권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쉽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제대회에서 보여주는 눈부신 활약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 스포츠에 대한 세계 일류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WBC, 여자월드컵, 아시안게임... 올해도 스포츠는 계속된다

2023년, 스포츠는 또 다른 질주를 시작한다. 세계야구클래식(WBC)부터 1년 미뤄진 항저우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계는 분주한 1년을 보낸다.

■ 2023 WBC(일본, 미국 등·3월8일~21일)

올해 야구는 일찍 기지개를 켜다. 코로나19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세계야구클래식(WBC) 때문이다. 한국은 2006년 1회 대회 때 4강에 오르면서 프로야구 흥행에 군불을 지폈다. 이후 2009년 2회 대회 때는 2008 베이징올림픽 9전 전승 우승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준우승을 했다. 그러나 2013년 3회, 2017년 4회 대회 때는 모두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4위에 머무르며 '우물 안 개구리'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때문에 3월8일 개막하는 세계야구클래식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강철 케이티 위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월8일 최종 엔트리 30명을 확정하고 2월14일부터 2주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키노스포츠컴플렉스에서 전지훈련을 한다. 이어 3월 초 일시 귀국했다가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3월 6~7일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한신 타이거스와 차례로 평가전을 치르고 일본 도쿄돔으로 입성한다. 한국은 일본, 호주, 중국, 체코와 B조 1라운드(3월9~13일)를 치른다. 한일전은 3월10일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다.

■ 2023 FIFA 여자 월드컵(호주, 뉴질랜드·7월20일~8월20일)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 대표팀은 지난해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3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 통산 4번째 무대. 여자축구 대표팀은 2015년 캐나다 대회 때 처음 16강에 올랐고 2003년 미국 대회, 2019년 프랑스 대회 때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은 9회 대회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를 하고 역대 최다인 32개국이 본선에서 경쟁한다. 남자 월드컵처럼 4개국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 2위가 16강전에 오른다. 한국은 H조에 편성돼 콜롬비아(7월25일·시드니), 모로코(7월30일·애들레이드), 독일(8월3일·브리즈번)과 차례대로 경기한다. 독일을 제외하고 콜롬비아, 모로코와는 대결해 볼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자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를 뚫으면 사상 처음 남녀 동반 16강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5년, 2019년 대회 우승팀인 미국이 3연패를 노리고 있다.

■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중국 항저우·9월23일~10월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항저우아시안게임이 9월 개최된다. 홈어드밴티지를 안고 있는 중국의 메달 독식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일본의 2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까지 5회 연속 2위를 차지했으나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때 일본에 2위 자리를 내줬다. 이번 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2024년 7월26일~8월11일) 전초전이 되기도 한다. 2020 도쿄올림픽 때 두각을 보인 안산(양궁), 황선우(수영), 이상혁(높이뛰기), 여서정(체조) 등이 그동안 얼마만큼 더 성장했는지 지켜볼 만하다. 탁구의 신유빈은 손목 부상으로 지난해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가능했으나 대회가 1년 미뤄지는 바람에 다시 출전 기회를 잡았다. 2018년 대회 때 나란히 금메달을 땀던 야구와 축구 등 구기 종목 성적도 관심거리다. 다만 KBO리그는 아시안게임 중에도 시즌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단별 대표팀 차출 범위에 따라 팀 순위가 요동칠 수도 있다.

박세리, 세계 여성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인물 36명에 선정

'한국 골프의 선구자' 박세리(46)가 세계 여성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상징적인 인물 36명에 선정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세계 여성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36명의 상징적 인물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매체는 박세리에 대해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여자 골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며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메이저 4승을 거두는 등 메이저 대회에서만 통산 5차례 우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세리는 아시아 출신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성공한 사실상 최초의 선수로, 수많은 다음 세대 선수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선정한 36명 가운데 아시아 국적 선수는 박세리가 유일하고, 동양계로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미셸 관(미국)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골프 종목에서는 박세리 외에 낸시 로페스(미국)와 골프 외에 육상 종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베이브 디드릭슨 자하리아스(미국)가 선정됐다.

현역 선수로는 2022년 AP통신 올해의 여자 선수로 뽑힌 수영 종목의 케이티 러데키와 체조의 시몬 바일스, 농구의 캔디스 파커, 테니스의 비너스 윌리엄스(이상 미국) 등이 36명에 포함됐다.

◇ 비즈니스 인사이더 선정 세계 여성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인물 36명

- ▲ 윌마 루돌프(미국·육상)
- ▲ 빌리 진 킹(미국·테니스)
- ▲ 린지 본(미국·스키)
- ▲ 알리 레이즈만(미국·체조)
- ▲ 알렉스 모건(미국·축구)
- ▲ 나스티아 류킨(미국·체조)
- ▲ 세리나 윌리엄스(미국·테니스)
- ▲ 대니카 패트릭(미국·모터스포츠)
- ▲ 론다 로우시(미국·이종격투기)
- ▲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테니스)
- ▲ 케이티 러데키(미국·수영)
- ▲ 시몬 바일스(미국·체조)
- ▲ 미시 프랭클린(미국·수영)
- ▲ 메건 러피노(미국·축구)
- ▲ 슈테피 그라프(독일·테니스)
- ▲ 미스티 메이-케리 월시 제닝스(미국·비치발리볼)
- ▲ 다이애나 토러시(미국·농구)
- ▲ 라리사 라티니나(러시아·체조)
- ▲ 재키 조이너 커시(미국·육상)
- ▲ 캔디스 파커(미국·농구)
- ▲ 나디아 코마네치(루마니아·체조)
- ▲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미국·테니스)
- ▲ 마르타(브라질·축구)
- ▲ 박세리(한국·골프)
- ▲ 낸시 리버먼(미국·농구)
- ▲ 미아 햄(미국·축구)
- ▲ 애비 워백(미국·축구)
- ▲ 메리 루 레턴(미국·체조)
- ▲ 미셸 관(미국·빙상)
- ▲ 비너스 윌리엄스(미국·테니스)
- ▲ 마야 무어(미국·농구)
- ▲ 베이브 디드릭슨 자하리아스(미국·골프-육상)
- ▲ 셰릴 스웁스(미국·농구)
- ▲ 체릴 밀러(미국·농구)
- ▲ 낸시 로페스(미국·골프)
- ▲ 리사 레슬리(미국·농구)

주간 스포츠 소식

"펠레 이전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불과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3007545917908>

조규성은 유럽·이정후는 미국? 2023년을 빛낼 스포츠 스타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325567&ref=A>

'겨울 이색 스포츠' 제천 의림지 알몸마라톤 15일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912310>

작년 찾지 못한 스포츠토토 적중상금·환불금 수령하세요

<https://mksports.co.kr/view/2023/2970>

2018평창기념재단, '2022 수호랑·반다비 스포츠 캠프' 개최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69511>

대구 국제스포츠대회 국비 5억 원 확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325477&ref=A>

요즘 스포츠 마케팅, '브랜드 선수단'이 대세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72>

계묘년은 야구, 여자 축구, 팀 코리아 차례... 2023년에도 스포츠는 뜨겁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1500056&wlog_tag3=naver

토끼띠 스포츠 스타들 주목... 류현진·안우진·김민선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general/2023/01/01/VWQ6X5JM5ZHNJKE7VIW2JW4UDQ/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